

김경진 교수의 섬기는 자 예수 이야기, 누가복음 이해하기

1. 누가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 오늘의 포인트:

- ① 신약성경의 4개의 장르
- ② 신약성경의 배열순서의 의미
- ③ 공관복음의 통일성
- ④ 복음의 두 요소: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1. 신약성경의 장르

신약성경은 4 개의 문학적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로서 사도행전, 그리고 묵시문학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서신서는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교회의 책들입니다.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경우, 각기 한 권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특한 문학적 장르 및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중 유일한 역사책으로서, 초대교회의 설립과 발전을 기록한 아주 소중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역사 가운데 나타날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량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신약성경은 크게 두 그룹, 즉 복음서와 서신서로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성경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복음서와 먼저 기록되었고, 서신서가 그 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되었고, 나중에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할 때, 아직 기록된 문헌 형태의 복음서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의 인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서신서의 경우, 크게 바울서신과 비 바울서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 바울서신은 보통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서신은 특정한 교회들이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그 교회들이 서신의 제목이 되는데, 공동서신은 불특정 교

회들이 대상이 되는 까닭에, 서신의 저자가 곧 책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의 배열 원리는 신학적 이유가 아니라, 대체로 서신서의 길이에 따라 배열되었습니다. 즉 가장 긴 서신서부터 짧은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배열되었습니다.

2. 신약성경의 배열순서

그러면 어찌하여 역사적으로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신약성경 앞부분에 배치되어있고, 그보다 일찍 기록된 서신서, 특히 바울서신이 신약성경 뒷부분에 배치된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바울서신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최초의 문서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구원론적으로 해석한 첫 번째 신학자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3-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정보, 이를테면 어디서 탄생했는지, 누가 부모인지, 누가 형제이고 자매인지, 그리고 족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울서신은 복음서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해석은 그 성격상 이차적이고 파생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적으로 먼저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신약성경 뒷부분에 배치된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서는, 비록 역사적으로 바울서신보다 후대에 기록되기는 하였지만, 바울서신의 해석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 앞부분에 배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은 역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해석”이라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책인 것입니다.

복음서는 다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뉘집니다.

두 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서, 사실 같은 종류의 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두 책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10% 미만인데, 그렇다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90% 그 내용이 다른

책인 것입니다. 이토록 두 책의 내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는 요한복음을 복음서에서 따로 떼어서, 사도 요한이 기술한 다른 책들, 즉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 등과 묶어서 <요한문헌>이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각 책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마치 하나의 사건을 함께 바라보는 듯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Synoptic Gospel -> syn = with, optic = see, observe

그런데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같은 사건과 같은 교훈을 다루고 있는 한데, 그 기록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을 읽고 이해할 때는 이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관복음 가운데 공통적인 내용을 통일성(unity)이라 부르고, 공관복음 가운데 다른 내용을 다양성(diversity)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이 강좌의 주제인 누가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공관복음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3. 공관복음의 통일성

먼저 통일성에 대하여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즉 사역과, 가르치심 즉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행 1:1)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 이 두 요소로 구성됩니다.

3.1.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사역)을 말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 4:23)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 말하는데, 즉 교육(teaching), 선포(preaching), 치유(healing)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3대 사역은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역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주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급식(給食)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시는 등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행하심의 절정(climax)은 결국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님은 이 땅의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십자가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곧 십자가이다. 물론 당연한 옳은 말씀이지만, 복음을 십자가하고만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는 바울서신만큼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하여 마가, 마태복음은 겨우 2번(막 10:45, 14:24; 마 20:28, 26:28), 누가복음의 경우는 겨우 1번(눅 22:20)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수난을 예고하는 말씀은 있으나, 주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 이유 및 목적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참고, 막 8:31, 9:31, 10:33-34). 따라서 복음이 곧 십자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분히 바울신학적 견해이고, 복음서 자체는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점을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3.2.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취임설교를 기억합니다. 취임설교란 주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행하신 설교를 말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의 취임설교는 주님의 사역의 성격 및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15)

“이 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 4:17)

누가복음에서는 취임설교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눅 4:18-19),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주님의 교훈의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눅 4:43-44)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들 구절을 종합해 볼 때, 한 마디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시기 위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7개의 천국 비유를 사용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온갖 기적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또한 능력으로 보여주신 후, 마침내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을 참작할 때 확인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행 1:3)

이후 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선포의 우선적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전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적으로 선포되었음이 드러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행 8:12)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행 28:23; 참고, 행 28:31, 14:22, 19:8, 20:25)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은 사도들과 초대 교회 지도자들의 선포에서도 여전히 우선적 메시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주님 행적의 절정으로서

의 십자가와 주님 가르침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요소가 함께 결합될 때에 비로소 제대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의 통일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왕국이란 단어에 집착하여 영토 혹은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장소적 개념도 있으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바로 통치 혹은 주권이란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란 시간과 장소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한 마디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는 이미 2 천년 전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 12:28)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나라인 것입니다.

3.3. 천국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기서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중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천국(天國)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는 기본적으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그 복음서를 기록하였는데, 마가복음에 16번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우 4번만 제외하고는 모두 천국, 즉 하늘나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결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를 사용할 까닭은,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를 기피하였고, 대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대체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 20:7)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자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하늘은 헬라어 원문

에 의하면 모두 복수입니다. 즉 하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냥 하늘, heaven이라고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하늘들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는 하늘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썼을까요? 이것 역시 주 독자층인 유대인들의 신앙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후 12:3)

※ 적용점

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 또한 남을 위한 희생적 삶의 근거가 됩니다.

② 우리 주님의 교훈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면,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인 것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침반 바이블

BIBLE